

행복의 약속에서 배제된 정서 이방인의 가능성: 모신 하미드의 『서쪽으로』*

김 은 혜

단독 / 전남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모신 하미드(Mohsin Hamid)의 『서쪽으로』(*Exit West*)를 사라 아메드(Sara Ahmed)의 『행복의 약속』(*The Promise of Happiness*)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작품이 규범적 행복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해체하고 새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상상하는지 고찰한다. 하미드는 신비한 ‘문’을 통해 사이드(Saeed)와 나디아(Nadia)를 비롯한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세계를 제시하면서, 단일한 국가 정체성과 안정된 공동체에 기반한 삶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먼저 사이드 분석에서는 그가 종교와 기도를 통해 고향과 부모에 대한 연결을 유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구 사회의 관점에서 그는 과거를 놓지 못하는 “우울증적 이주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작품은 그를 실패한 이주자로 재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이드는 기도를 통해 상실과 애도를 견디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간다. 사이드는 어느 공동체의 동질화 압력에도 완전히 포섭되지 않음으로써 정서 이방인이 된다. 이어 나디아 분석에서는 그녀를 “분위기를 깨는 페미니스트”이자 “불행한 쿼어”라는 정서 이방인의 위치에서 읽는다. 나디아는 가족과 사회가 제시하는 행복 대본을 거부하고, 이동 과정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7038551)

속에서 자신의 퀴어적 욕망과 새로운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나디아와 사이드가 함께하는 최종 이주지 샌프란시스코 인근 마린(Marin)을 무질서와 우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공간으로 분석한다. 마린에서 사이드와 나디아는 서로 같은 행복의 방향을 공유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동일한 삶을 강요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서쪽으로』가 동일성과 배제에 기반한 행복 공동체를 넘어, 차이와 이동, 불확실성을 허용하는 새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작품임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모신 하미드, 『서쪽으로』, 사라 아메드, 『행복의 약속』, 행복 정치, 정서 이방인, 공존

1. 들어가며

모신 하미드(Mohsin Hamid)의 『서쪽으로』(*Exit West*, 2017)는 사라 아메드(Sara Ahmed)의 『행복의 약속』(*The Promise of Happiness*, 2010)을 통해 읽을 때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미드는 『나방 연기』(*Moth Smoke*, 2000), 『주저하는 근본주의자』(*The Reluctant Fundamentalist*, 2007), 『서쪽으로』 등을 통해 세계화와 이주, 서구와 비서구의 관계 탐구를 지속해온 작가이다. 파키스탄 라호르(Lahore)에서 태어난 그는 서구의 엘리트 교육과 직장 생활을 경험한 뒤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삶의 궤적은 서구 중심 세계질서와 이주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서쪽으로』에서도 그 문제의식은 지속된다.

『서쪽으로』는 브렉시트(Brexit), 트럼프(Trump)의 반이민주의 정치, 유럽 난민 위기 등 2010년대 후반의 정치 상황에서 발표된 작품이다. 쇼(Kristian Shaw)가 지적하듯 브렉시트 문학(BrexLit)은 이동과 국경, 소속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데(25-26), 『서쪽으로』 역시 내전으로 붕괴된 고향을 떠난 나디아(Nadia)와 사이드(Saeed)가 미코

노스(Mykonos), 런던을 거쳐 샌프란시스코 인근 마린(Marin)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그린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을 비롯한 난민들이 육로나 해로가 아닌 신비한 ‘문’(door)을 통해 순간이동 할 수 있다는 설정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문들이 세계 곳곳에 출현함으로써 국가의 경계와 통제 체계가 무력화되고, 마치 “온 지구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EW* 167).¹⁾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독자는 이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특히 하미드는 이주를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이동성과 공간 정치 측면에 주목해 왔다. 예를 들어 이동 자체가 지닌 정치적 가능성을 강조하거나(Lagji), 난민의 존재가 국민국가의 개념을 재설정하게 한다는 연구(Perfect), 그리고 국가 권력이 이주자의 이동성을 규율하려는 방식을 분석한 연구(Olumofin)가 있다. 또한 기억과 장소, 배제와 환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논의하는 흐름도 있다(Sankar and Banerjee, Bastida-Rodríguez).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작품 중후반부에 비중 있게 다뤄지는 사이드와 나디아의 정체성과 관계성 재구성 양상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다. 이들이 정체성과 관계성을 탐색하는 과정은 사라 아메드가 비판하는 규범적 행복 공동체의 배제 논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쪽으로』의 “서쪽”이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특정한 행복의 방향성과 규범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를 아메드의 행복 정치와 “정서 이방인”(affect alien)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서 이방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나디아와 사이드가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행복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PH* 42)²⁾.

아메드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특정한 삶의 방식과 관계를 따르도록 만드는 사회적 규범이다. 가족, 국가, 공동체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제시하고, 그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존재로 인정한다. 반대로 그 규범적 경로를 벗어나는 존재들은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소속과 배제를 조직하는 정치적 장치라 할 수 있다(*PH* 42). 즉, 행복 정치는 동일한 삶의 형태와 가

치관을 이상적인 것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그와 다른 존재들을 배제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배제된 이들을 아메드는 정서 이방인으로 개념화한다.

하지만 아메드는 정서 이방인을 공동체의 정동적 규범에 부합하지 못해 배제된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정서 이방인은 “세상에 의해 정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방식, 혹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정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인해 소외되는 존재”이다(*PH* 164). 즉 정서 이방인은 자신의 부적합성을 표출함으로써 공동체가 당연시하는 행복 질서를 교란하는 능동적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본문에서 살피볼 사이드와 나디아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이드는 영국 주류 사회와 동향 공동체 모두의 동질화 압력을 비켜 가며 자신의 위치를 찾고, 나디아는 가족과 사회가 제시하는 행복 대본을 거부함으로써 단일한 공동체 질서를 교란한다. 이와 같은 사이드와 나디아의 행보는 정서 이방인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메드의 분석은 하미드의 문제의식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J. 브라운(Jeffery Brown)과의 인터뷰에서 하미드는, 이주가 증가하고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고 양극화된다고 설명하며, 과거를 위대하고 안정적이었던 시절로 이상화하여 사람들에게 그 시대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국가 지도자들을 비판한다. 이러한 향수 정치는 변화와 차이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은 바로 이러한 정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프레이저(Nancy Fraser)가 지적한 대로 트럼프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분노를 인종차별, 여성 혐오, 이슬람 혐오, 동성애 혐오, 성전환자 혐오 그리고 반이민 정서 아래 규합하였다(15). W. 브라운(Wendy Brown)도 트럼프와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자신이 상실한 것들의 책임을 아주 손쉽게 이주자에게 돌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이성애로 구성된 행복한 가족, 제 분수를 아는 여성과 소

수인종, 안전하고 동질적인 이웃, 그리고 테러 없는 세상에서 백인 기독교도 남성이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을 구성하는 세계를 복원하고자 한다(5). 그러나 하미드는 『서쪽으로』에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문’을 활용하여 그러한 세계가 불가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오히려 ‘종말처럼’ 보이는 상황이 다채롭고 새로운 가능성을 담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미드가 ‘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물리적 이동의 가능성만이 아니다. 칸(Saba Karim Khan)과의 인터뷰에서 하미드는 제목에 담긴 “West”의 의미가 지리적 방향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고 밝힌 바 있다. 작품 속 ‘서쪽’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이동이라는 오랜 서사와 연결된다. 그러나 하미드는 이주와 문화적 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구’라는 개념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지, 혹은 애초에 그것이 허구적 개념은 아니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15). 그는 서구가 지닌 특정한 삶의 가치와 기대가 와해되는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단일하게 이상화된 ‘서구’라는 개념을 해체한다. 이 점에서 『서쪽으로』를 아메드가 제시한 행복 분석의 틀로 읽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미드가 ‘서구’를 고정된 이상향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그려냄으로써 다양성이 공존할 가능성을 상상한다면, 아메드는 ‘행복’이라는 관념이 내포하는 규범성과 배제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정서 이방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탐색한다. 아메드는 행복이 세상을 “이른바 올바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좋은 삶이라 정해진 범주에서 벗어난 페미니스트, 퀴어, 이주자가 어떻게 분위기를 깨는, 불행한, 우울증적인 사람들로 낙인찍히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그는 ‘행복의 약속’에 내포된 폭력성을 노출시킨다(PH 13).

하미드는 사이드와 나디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한 삶’이 누군가를 배척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메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일한 행복 경로를 따르는 정서 공동체에게 사이드와 나디아는 우울증적 이주자, 분위기 깨는 페미니스트, 그리고 불행한 퀴어로서 행복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존재로 비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하미드는 이들을 사회가 제시하는 규범적 행복 경로를 벗어나 우

연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가는 인물로 재현한다. 사이드는 주류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쉽게 전환되기보다 종교와 기도를 통해 고향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한편, 나디아는 기존의 성적·문화적 규범을 벗어나며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쪽으로』에서 특정한 행복과 삶의 방향성을 조직하는 규범적 질서 속에서 사이드와 나디아가 어떻게 정서 이방인이 되고, 또 어떻게 새로운 관계와 소속의 가능성을 모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하미드가 동일성에 기반한 행복 공동체의 질서를 해체하면서도, 감정과 삶의 방향성을 강요하지 않는 공존 가능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사이드: 우울증적 이주자가 아닌 대안을 찾는 정서 이방인

아메드는 『감정의 문화정치』(*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와 『행복의 약속』에서 감정이 사회적·정치적 장 안에서 조직되고 배치됨으로써 불평등한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그는 정동을 개인 내부에 고정된 상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순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감정의 문화정치』에서 이를 “정동 경제”(affective economies)로 개념화한다. 그에 따르면, 감정은 어떤 대상이나 주체 안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기호들 사이를 이동하고 축적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것’이다. 이러한 순환 속에서 감정은 특정 대상에 “붙어”(stick) 의미를 강화하고, 반복을 통해 더 큰 정동적 가치를 획득한다(45-46). 그 결과 어떤 대상들은 행복, 안전, 안정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 응집된 지향점이 되며, 개인은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 움직이도록 정서적으로 조직된다. 즉, 행복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특정 대상과 방향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정동적 효과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는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규범을 재생산하고 개인의 행위를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메드의 주

장이다. 『서쪽으로』에서 이러한 정동 경제는 특정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준다. 사이드가 향하는 서구, 그중에서도 런던은 이 정동 경제가 가장 응축된 곳이다. 그가 그곳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배제는 곧 ‘서쪽’이 표상하는 행복의 방향성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런던에서 사이드가 경험하는 불안과 향수, 그리고 난민들에게 가해지는 배제와 폭력은 서구 다문화주의가 표방하는 ‘행복 정치’가 특정한 정동적 지향을 강제하고 그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을 배제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사이드의 행보는 ‘행복 정치’가 요구하는 정동적 동화와 동일한 삶의 방향성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메드는 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시민권을 무기로 이주자들에게 주류 문화로의 통합과 일치가 행복을 증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강제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다. 그리고 이 강제는 백인성에 기반하고 유동성이 낮은 공동체를 이상적인 삶으로 상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본다(PH 121). 이 같은 시각은 불행의 원인을 이주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아메드는 이주자를 국가적 이상에 구속하고 통합하도록 요구하는 구조 속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이주자가 ‘우울증적 이주자’로 인식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시민권 획득은 영국의 가치를 따르는 정서 공동체로 흡수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동일한 행복 지향을 전제한다(PH 130). 이주자가 이 같은 행복 의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주류 사회는 그를 ‘우울증적 이주자’로 낙인찍고, 그는 정서 이방인이 된다.

이주 후 기도에 몰입하는 사이드는 ‘이주자의 행복 의무’를 따르지 않는 정서 이방인으로 규정될 수 있다. 나디아는 ‘떠남’을 기회로 보았다면, 사이드에게 그것은 “상실”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실을 기도로 대체한다(EW 90). 고향에서 사이드는 자유롭게 연애하고 기도를 거르기도 하는 등 종교적 면에서 다소 융통성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집이 되지 않기 위해 고향에 남은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인해 이주 후 그가 느낀 첫 감정은 “쓰라림”(bitterness)이었고, 이러한 감정 속에서 사이드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EW 102).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고 아버지와 함께 기도했기에, 기도는 그에게 종교 이전에 가족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였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던(Liliana Naydan)은 향수에 젖어 있는 이주자들을 하미드가 “현재에 존재하면서도 온전히 현재에 속하지 못하는 상태”(being present without presence)로 재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사이드가 과거의 문화와 종교에 집착할수록 나디아와의 유대가 약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439). 그러나 작품의 화자는 “우리는 이주할 때 우리가 떠나온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죽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EW* 94). 카터(Josephine Carter)도 지적하듯, 이는 하미드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실과 죄책감을 감당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많은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사이드에게도 상실한 것들을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사이드와 나디아의 관계가 소원해진 원인은 사이드의 향수 때문이라기보다, 공간 변화와 함께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방향과 속도의 차이로 할 수 있다.

사이드의 정체성이 런던의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하는 속도와 방식은 영국 주류 정서 공동체의 시선으로 본다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일 것이다. 사이드는 여러 인종이 뒤섞인 거주지에서 “부족적”(something tribal)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반면, 동향 사람들의 공간에서 동족 남성들과 기도 할 때는 소속감을 느낀다(*EW* 146). 이러한 감정은 행복과 안정감이 특정 공동체 내부의 소속감과 결부되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영국의 정서 공동체 역시 동질성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하며, 이주자들에게 ‘주류 사회’로 동화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사이드는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과거를 붙잡고 있는 이주자로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우울증자인 것이다. 아메드는 누가 우울증자가 되는가에 대해 분석하면서, 상실한 대상을 놓아주지 못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를 상실을 놓지 못하는 존재로 해석할 때 그가 우울증자로 진단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한 대상을 어떤 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우울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지적한다(*PH* 141). 따라서 지배적 정서 공동체의 기준에서 사이드는 상실한 고향과 부모를 놓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무는 존재이자,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 되어야 하는 이주자이다.

더구나 이슬람을 고수하는 사이드는 주류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이방인,

시민권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런던에서 대규모 이주자 소탕 작전이 개시된다는 소문을 듣고 사이드는 이슬람 공동체에서 나눠준 총으로 무장하는데, 이는 이주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상정하는 반이민주의자들의 공포가 옳다는 증거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이드는 동화된 행복한 시민권자와 그렇지 못한 우울증적 이주자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그의 동향 사람들의 집에서, 흰 반점이 있는 수염을 지닌 한 남자는 순교를 . . . 하나의 가능한 결말로 이야기하며, 인종이나 언어, 국적을 초월해 종교적 원칙에 따라 이주자들이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사이드는 이러한 말들에 감동 받고 힘을 얻으면서도 갈등을 느꼈다. 그것은 고향의 무장 세력들이 내뿜던 야만적인 말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으나 . . . 동시에 그 남자의 말에 이끌린 남자들의 모임은 때때로 그에게 고향의 무장 세력들을 떠올리게 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 썩어들어가는 듯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EW 152-53)

사이드는 동향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정서적 안정을 얻지만, 그 말에 이끌려 모인 남성들의 형상에서 고향의 반군을 떠올리며 불쾌감을 느낀다. 사이드가 영국 사회의 요구대로 행복한 시민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려하듯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느끼는 불쾌감은 동일한 종교적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정동적 지향을 온전히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내적 긴장을 드러내며, 사이드를 동향 정서 공동체 내부와 외부 경계에 위치한 정서 이방인으로 만든다.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안정감과 별도로, 그 안에 내재한 경직성과 폭력성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이는 사이드가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영국 주류 사회가 요구하는 동화의 방향과 동향 공동체 내부의 급진화된 결속의 방향, 그 어느 쪽으로도 자신을 완전히 정렬시키지 않는다. 사이드는 두 공동체의 동질과 압력을 동시에 비껴 가며, 이로써 역설적으로 두 공동체 모두에 대해 정서 이방인이 된다.

그는 동화와 결속 대신 기도를 통해 보다 개인적이면서도 정동적인 방식으로 자신

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간다. 그의 이러한 방향성은 런던 이주자 노동 캠프(worker camp) 생활 중에 잘 드러난다(*EW* 167). 이 캠프는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영국 정부가 런던 인근에 이주자들을 수용한 장소이다. 그곳에서 나디아와 사이드는 다른 이주자들과 함께 이 지역을 개발하는 노동에 참여한다. 사이드는 이곳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특히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더욱 절실히 기도한다. 크누센과 라벡(Knudsen and Rahbek)도 강조한 것처럼, 사이드에게 기도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면서 동시에 부모와 깊이 연결된, 특히 아버지와의 긴밀한 연결에서 비롯된 행위이다(450).

사이드는 아버지와 다른 남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에게 기도는 점차 남자가 되는 것,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과 연결되었다. 그것은 그를 성인 남성 세계와 이어주는 의식(ritual)이었고, 동시에 어떤 종류의 남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념과도 이어져 있었다. 신사다운 남자, 온화한 남자, 공동체와 신앙, 친절과 품위를 지키는 남자, 다시 말해 그의 아버지와 같은 남자가 되는 것이었다. (*EW* 200-01)

그는 성장기에 아버지와 함께 참석한 남성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 남성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올바른 남성상을 구체화하였다. 그래서 기도는 그에게 사회와의 연결 통로이자, 정체성 일부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사이드의 기도는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격적인 집단 의례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권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캠프에서 동향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나디아에게 “태어난 도시로부터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 도시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EW* 187). 하지만 사이드의 정체성 형성에 기도가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사이드의 기도 행위에 내재한 향수는 재결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 그는 아버지와 연결되고, 아버지와의 연결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준다. 따라서 이는 이주로 인해 “균열된 자신의 정체성을 복원”

하기 위해 “단편화된 경험과 기억을 다시 이어 붙이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Sankar and Banerjee 8).

그리고 사이드는 기도를 통해 얻은 깨달음, 즉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 남성상을 일상의 실천으로 구현한다. 예를 들어, 영어가 가능한 그는 본토 근로 감독과 이주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고, 새로운 이주자들의 캠프 정착을 돕기도 한다. 사이드의 근로 구역을 담당하는 영국 원주민 감독은 사이드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으며, 다른 인종을 불편해하던 사이드도 그에게 존경심을 느낀다. 이처럼 사이드는 캠프의 질서에 순응하고 영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회가 요구하듯 과거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는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간극을 메우며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아메드도 주장하듯, 정서 공동체와 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지지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주자의 관점에서 행복은 다른 방식일 수 있다(PH 159). 사이드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기존 공동체에 대한 정동적 애착과 애도의 감각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다. 하미드는 사이드를 통해, 인류 역사는 이주의 역사이며, 이주와 함께 문화도 뒤섞이기에 모두가 같은 길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이드가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기도’라는 행위는 규범적 행복 공동체의 동일화 논리를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이드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 자신만의 공존 가능성을 찾아가지만, 나디아는 다른 길을 택한다. 사이드가 공동체의 동질화 압력을 비켜 간다면, 나디아는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쪽을 택한다. 다음 장에서는 나디아가 가족과 사회의 행복 대본을 거부하며 분위기를 깨는 자, 즉 또 다른 방식의 정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3. 나디아: 분위기 깨는 페미니스트에서 행복한 퀴어로

나디아의 서쪽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을 넘어, 사회의 주류 정서 공동체가

제시하는 행복의 방향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녀는 고향에서도 서구에서도 가족, 종교, 이성애 규범이 제시하는 ‘올바른 삶’의 경로를 기꺼이 이탈하는 정서 이방인으로 존재한다. 나디아는 사이드에 비해 서쪽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와 정체성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물이다. 이는 개인 성향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고향에서의 삶이 그녀에게는 “거의 평생 숨이 막혔다”고 느껴질 만큼 억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 후 그녀는 향수보다 자유를 느낀다(*EW* 156).

가족을 통해 행복 대상 공유와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아메드의 지적처럼, 이슬람 국가인 고향의 행복 담론을 공유하지 않는 나디아는 가족들의 행복한 분위기를 깨고 그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인물로 여겨진다. 가족은 행복한 삶에 필수요소로서, 가족을 통해 특정한 것을 좋은 것으로 보는 감정적 지향이 생겨나고, 자신의 욕망을 가족과 공유하고자 하므로 “압력지점”(pressure point)이기도 하다(*PH* 46). 마치 부모가 자신의 욕망을 자녀가 성취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복은 “상호 열망을 주고받는 형식이자, 바로 그 상호성의 언어로 강압을 실행하고 감추는 형식”이기도 하다(*PH* 91). 역사적으로 젠더화된 행복 대본은 행복한 가정, 좋은 남자의 행복한 아내에 대한 예시를 열거하며 안내선을 제시하고, 이탈 시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들을 열거한다. 나디아는 이 안내선에서 이탈한 인물로 가족의 행복 판타지를 방해하는 “분위기를 깨는 페미니스트”(feminist killjoys)이자,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퀴어로서, 자발적으로 정서 이방인의 자리를 선택한다(*PH* 20).

그녀는 고향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종교 문제에서 점점 불경스러워져서 아버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미혼 여성의 신분으로 독립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가족에게 “없는 사람”이 된다(*EW* 18). 가족을 비롯한 정서 공동체는 이처럼 가족의 행복을 깨뜨리는 나디아를 배제한다. 이러한 배제는 정서 공동체가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불행을 대가로 행복을 만들고 있음을 드러낸다. 아메드도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를 분위기 깨는 이로 여기는 이유는 누군가가 잘 지내지 못한다는 징후들을 지워버림으로써 행복이 유지된다는 점을 이들이 폭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PH* 66). 그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가족과 절연하고 독립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정서 이방인의 길로 들어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신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무기가 바로 “발끝부터 목 아래까지 몸을 덮는 검은 긴 로브”라는 점이다. 나디아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검은 로브로 몸을 완전히 가리고 그 아래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음으로써 공격적인 남성들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집에 사이드가 출입할 때 사이드에게 로브를 입혀 주위의 시선을 속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사다프(Shazia Sadaf)는 나디아가 “검은 로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지니는 본래 의미를 조롱하고 있다고 해석한다(641). 즉 나디아는 통제의 도구를 사용해서 통제에서 벗어난다. 그녀가 검은 로브를 입는 것은 세상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듯 보임으로써 그것에 맞설 준비를 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나디아는 고향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회가 제시하는 행복의 길에서 기꺼이 벗어난 정서 이방인이다. 이와 같은 그녀의 정서는 서쪽으로 이주 후 자신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문’을 통한 서쪽으로의 이주는 이주민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규정하는 정동적·내면적 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요구한다(Lagji 219). 이를 아메드식으로 설명하자면, 특정 대상에 붙어 있던 정동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상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이주 후,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나디아도 정동적 지도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그녀는 퇴거와 추방,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고통보다는 자유를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간다.

런던에서 나디아는 다양한 인종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유를 체험한다. 이 자유는 고향에서의 숨 막힘과 대비를 이루며, 마치 무더운 날 오토바이 헬멧의 바이저를 들어 올릴 때 얼굴에 닿는 “바람”과 같은 시원한 해방감을 준다(EW 156). 나디아가 느끼는 “바람”은 시원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숨이 트이는 감각, 즉 억압적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과 연결된다. 아메드 역시 견딜 만한 삶을 위한 투쟁은 “숨 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하며, 숨쉬기와 함께 상상력과 가능성이 따라온

다고 설명한다(PH 120). 이 점에서 작품 속 “바람”의 이미지는 자유와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나디아는 어렵게 얻은 숨 쉴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시야를 확장해 간다. 런던에서 나디아가 나이지리아 출신 주민들의 의사결정 협의체(Nigerian council)에 들어가 활동한 경험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 협의회 활동은 그녀의 정체성 변화가 시작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나디아, 사이드와 함께 런던의 빈집을 점유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나디아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어리고, 인종과 언어도 다르지만, 이 모임은 그녀를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주체로 인정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첫 경험을 통해 그녀는 변화하게 되고, “자신의 출신 문화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주체성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는” 계기를 맞는다(Bastida-Rodríguez 88).

그녀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 정체성 변화로 이어진다. 노동자 캠프에서의 생활이 안정될 즈음, 그녀는 미코노스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소녀의 꿈을 꾀 후 성적 흥분을 느끼고 자신의 성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녀가 고향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였으며, 사이드와의 육체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인 편이긴 하였으나 동성에 욕구는 그녀로서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사이드와 성적 긴장감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엄연한 연인 사이였으므로,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변화를 억누르거나 부인하지 않고 지켜본다. 사실 작품은 나디아의 성적 지향이 바뀌는 특정한 계기나 사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작품의 화자는 인간의 성격이 변치 않는 단색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색을 드러내는 “스크린”과 같음을 강조한다(EW 186). 나디아의 욕망에 단일한 원인을 부연하지 않는 이러한 서술 방식은, 퀴어 욕망 역시 이성애와 다르지 않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나디아의 선택은 난민, 이주자, 페미니스트에 퀴어 정체성까지 더해진 정서 이방인으로서 그녀가 행복 대본에서 완전히 이탈하였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는 사

이드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아메드도 지적하듯, 행복은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같은 상호성의 언어를 통해 특정 감정의 공유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상대가 나와 똑같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기를 바란다(PH 91). 따라서 퀴어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애초에 그들이 슬프거나 비참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퀴어의 사랑에 불행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불행-원인”이기 때문이다(PH 98). 그러므로 그녀가 서구에 있다고 해서 퀴어로서 그녀가 감내해야 할 무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복 대본에서 일탈한 페미니스트와 퀴어의 역사는 “이탈의 결과를 기꺼이 감내한 사람들의 역사”라는 점을 아메드도 지적한 것처럼, 나디아는 퀴어를 불행으로 간주하는 세상과 마주한다(PH 91).

따라서 그녀의 퀴어성은 규범적 행복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정치적 방향 전환으로 읽을 수 있다. 즉, 나디아의 정체성 변화는 ‘문’이 만들어 낸 유동성이 물리적 이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그녀의 변화는 “열린 ‘문’이 인간관계에서 초국가적이면서도 초문화적인 공감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Knudsen and Rahbek 447). 결국, 그녀는 단순히 기존 공동체에서 배제된 인물이 아니라, 규범적 행복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존재로서, 가족, 종교, 이성애 규범이 제시하는 행복의 경로를 거부하며 정서 이방인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그녀의 위치는 『서쪽으로』가 동일한 감정과 삶의 방향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행복 공동체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마린의 사이드와 나디아: 무질서와 우연 가득한 공간의 가능성

아메드는 사람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 비참한 자들이 머무르는 위험한 곳을 오히려 가능성과 약속이 가장 충만한 공간으로 해석한다. 그곳은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들

이 유보되고, 이상적인 가족·친구·연인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PH 191). 다시 말해 위험과 가능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사이드와 나디아가 함께하는 여정의 마지막 장소인 마린은 “마치 종말이 도래한 것처럼” 보이는 곳이다(EW 215). 마린은 곳곳에서 이주해온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공존하는 공간이며, 무질서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 만큼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행복 대본’의 규율이 느슨해진 마린에서 사이드와 나디아는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각자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기 시작한다. 이는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변화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앞서 언급했듯, 작품의 화자는 인간의 성격이 “스크린”과 같아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드러내는 색조도 달라진다”고 말한다(EW 186). 사이드와 나디아 역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체성이 변화하지만, 그 방향성과 속도는 서로 다르다. 사이드는 종교를 통해 과거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하고, 나디아는 개방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 나디아에게 로브가 일종의 갑옷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드는 신앙심 없는 그녀가 비교적 안전한 노동자 캠프에서도 검은 로브를 계속 착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나디아는 사이드의 기도가 정체성 일부로서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가 과거에 붙잡혀 있다고 느낀다. 퍼펙트(Michael Perfect)가 말하듯, 사이드와 나디아는 같은 경로를 따라 이동하지만, 결국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주”하게 된다(192). 여기서 이주는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정동적·정체성적 이동을 포함한다.

대화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도, 이들은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서로에 대한 의무감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그 원인은 런던의 노동자 캠프라는 공간과도 관련이 있다. 이곳은 이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관계를 새롭게 조정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공간이다. 웨스트모어랜드(Trevor Westmoreland)는 하미드가 『서쪽으로』에서 “장소와 주체성이 서로를 구성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80). 즉,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기억, 관계, 감정,

역사, 문화가 중첩되는 공간이며, 인간은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대상들과 접촉하며 새로운 정동적 방향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캠프는 규제와 감시, 통제를 우선하는 공간으로서, 나디아와 사이드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주자들은 노동자 캠프에서 노동의 대가로 40제곱미터 넓이의 땅에 집과 전기, 수도 등의 사용권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일견 원주민과 이주자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올루포핀(Olasubomi Olumofin)은 이 공간을 파놉티콘적(panoptic) 권력이 이주자들의 이동성을 규율하고, 그들을 분석 가능한 공간 안에 조직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다(393). 실제로 사이드와 나디아는 울타리로 경계를 두른 노동자 캠프의 건설 현장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고, 천장이 뚫린 거대한 천막 안에서 커튼 하나로 나뉜 공간에 거주하며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한다. 드론은 공중에서 이들의 일상을 녹화하고 감시한다. 바스티다-로드리게스(Patricia Bastida-Rodríguez) 역시 이 공간을 현대의 실현이라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공간적 배제”로 분석한다(85). 국가가 위로부터 규칙과 질서를 부여하는 노동자 캠프는 외형상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율에 순응해야 머무를 수 있는 조건부 수용의 공간이다.

이처럼 노동자 캠프가 이주자들의 관계와 정체성을 규율하고 고정하려는 공간이라면, 마린은 그러한 질서와 경계가 느슨해지는 공간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나디아는 사이드에게 ‘문’을 통해 마린으로 이주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며 캠프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동한다. 마린의 혼돈과 무질서, 다채로움과 자유로움은 그들이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도록 돕는다. 마린은 “압도적으로 가난”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낙관의 기운이 남아 있는” 곳(EW 192), 그리고 “거대한 창조적 개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묘사된다(EW 216). 아메드가 위험과 가능성을 분리하지 않은 것처럼, 전기와 수도조차 갖춰지지 않은 비공식 정착지 마린의 불안정성

위에서 우리는 마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마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전자기기, 서로 다른 피부색과 문화가 뒤섞인 “양상불”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는 혼종성과 다원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EW* 216). 올루 모핀 역시 마린에서 하미드가 국가와 국가성을 새롭게 다시 쓰고 있으며, 런던에서 국가를 구성하던 배제의 정치가 이곳에서는 다원주의와 수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성의 가능성으로 전환된다고 분석한다(396).

이와 같은 공간 속에서 사이드는 흑인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다. 그는 한 흑인 설교자의 설교에 감동 받고 설교자가 이끄는 기도 공동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다. 이는 켄케이 쌓여온 폭력의 역사 속에서도 “미래에 이식되는 모든 토양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층을 비옥하게 유지”해온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끌림을 느꼈기 때문이다(*EW* 197). 이곳에서 사이드는 더 이상 동족 안에서만 안정감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과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영감을 얻는다. 이는 그가 출신과 인종이라는 동일성을 매개로 하는 결속을 넘어, 인종과 종교적 배경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결속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그의 기도 방향에서도 드러난다. 그동안 기도가 부모님을 애도하고 과거와 연결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던, 그리고 앞으로 상실을 경험하게 될 인류 전체를 위해 기도한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인류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을 믿으며 “애도의 표현으로, 위로로, 그리고 희망으로” 기도한다(*EW* 202). 크누센과 라벡은 사이드의 기도가 상실과 애도의 경험 속에서 변화하며, 공동체적 연대와 인류애로 확장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기도는 하미드가 제시하는 급진적 희망과 새로운 소속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451).

기도의 변화는 그와 나디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 사이드는 흑인 설교자의 딸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나디아 역시 그의 감정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사이드는 나디아에게 충실하고자 설교자의 딸과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선택은 성장기 때 기도를 통해 형성된 그의 이상적 남성상과 관련 있다. 앞서 언급했듯, 사이드가 지향하는 남성상은 공동체와 가족에 충실하며 친절과 품위를 갖춘, 한 마디

로 아버지와 같은 남성이었다. 그러므로 힘든 시간을 함께해 온 나디아를 책임감 있게 대하고 그녀 곁을 지키려는 태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남성상에 다가가기 위한 그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사이드와 나디아는 서로를 연인이라기보다 남매처럼 느끼고 있었고, 서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이드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단순히 나디아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식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이드의 기도 지향이 변화함에 따라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 남성성의 의미 역시 확장된다. 사이드는 기도와 종교, 고향에 대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설교자의 딸과 함께할 때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비로소 인정한다.

나디아 역시 사이드의 변화를 직감하고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마린에서 첫 몇 달 동안 나디아와 사이드가 함께한 이유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상대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둘만의 세계가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했던 것은 “서로를 놓아주기 전에 먼저 단단한 삶의 기반을 찾기 바라는 마음”이었다(EW 203). 사이드에게 이러한 마음은 자신과의 약속에 가까웠지만, 나디아에게는 사이드의 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래서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이후에도, 나디아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의 행복을 유보한다. 그리고 사이드가 다른 여성에게서 안정과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나디아는 의무감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욕망과 정체성에 충실한 삶으로 나아간다. 사이드 역시 그녀를 떠나보냄으로써 과거와 의무감을 내려놓고 좀 더 자유롭게 미래를 향할 준비를 한다.

연인과 가족 사이 어디쯤 놓인 관계 속에서 사이드와 나디아는 서로에게 아메드가 말하는 “압력지점”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라는 정서 공동체가 제시하는 행복의 방향에서 벗어나 있으며, 네이던이 말하듯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의 좁은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형태를 보여준다(446). 이들은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들이 유보된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며, 함께 만들어온 정든 세계를 떠나 “어쩌면”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아메드는 “우연”(hap)이 “행복”(happiness) 속에도 들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행복한 미래란 어쩌면의 미래”라고 말한다(PH 198). ‘문’을 통과한 나디아와 사이드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어쩌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서쪽으로』는 동일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자유를 인정하는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미드는 마린이라는 무질서하고 유동적인 공간을 통해 동일성에 기반한 행복 공동체 대신, 차이와 이동을 허용하는 새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마린의 의미는 서로 다른 존재들을 하나의 동일한 가치와 감정으로 통합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사이드와 나디아 그리고 마린의 다양성이 제시하는 공존은 규범적 행복 공동체의 동일화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서쪽으로』에는 사이드와 나디아의 여정 사이사이 여러 편의 짧은 삽화가 등장한다. 이 삽화들은 ‘문’을 통해 이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그린다. 그 중 팔로 알토(Palo Alto)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성의 일화가 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집에서 이동한 적이 없지만, 집 밖 풍경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다. 주변에 이사가 빈번해 졌고, 아무 데서나 열리는 문들로 인해 낯선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녀는 이주한 적이 없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자신도 이주한 듯한 기분을 느낀다. 이 삽화는 사람들이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이주와 뒤섞임이 만들어내는 변화로부터 누구도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이주를 특정한 사람들만의 경험으로 한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미드는 ‘문’을 통해 사람과 문화, 언어와 인종이 끊임없이 뒤섞이는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단일한 공동체와 안정된 정체성에 기반한 삶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행복의 약속』에서 아메드는 특정한 사회적 지향점을 행복과 동일시키는 순간 사람들은 그 행복에서 벗어난 이들을 소외하고 차별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 행복 담론이 만들어낸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사회는 다름을 배척하는데 그치지 않고, 같은 행복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행이라는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이들을 통제하는 정치를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아메드는 행복 경로 이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역설한다. 이 경로를 이탈할 때 우연 발생이 일어나고 이때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아메드는 분위기를 깨는, 불행한, 우울한 정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소외된 정서를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서쪽으로』에서 사이드와 나디아는 정서 이방인으로서 행복한 가족, 행복한 국가와 같은 지배적 행복 관념을 넘어서 대안적 행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행복 대본과 국가적 정서 공동체의 규율이 약화될 때, 서로 다른 정체성과 지향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마린은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간이다. 그곳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닌 바람직한 미래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이다(EW 216). 이곳에서 사이드와 나디아는 모두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서로를 붙잡기보다 놓아줌으로써 각자의 삶과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서쪽으로』는 난민의 이동과 공존을 낙관적으로 상상하는 작품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동일한 행복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타자를 배제하는지 드러낸다. 그리고 “서쪽”으로 상징되는 특정한 삶의 방향과 감정 규범이 해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가 지닌 가능성에 주목한다. 서로 다른 욕망과 방향성을 지닌 존재들이 서로에게 동일성을 강요하지 않은 채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이 작품은 규범적 행복 공동체를 넘어서는 공존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다.

Notes

- 1) Hamid, Mohsin. *Exit West*. Penguin, 2017.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은 괄호 안에 EW와 쪽수로 표시한다.
- 2) Ahmed, Sara. *The Promise of Happiness*. Duke UP, 2010.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PH와 쪽수로 표시한다.

인 용 문 헌

- Ahmed, Sara.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UP, 2014.
- _____. *The Promise of Happiness*. Duke UP, 2010.
- Bastida-Rodríguez, Patricia. "Writing Solidarity in Brexit London: Exclusions and Alliances in Mohsin Hamid's *Exit West* and Aminatta Forna's *Happiness*." *English Studies*, vol. 107, no. 1, 2026, pp. 79-100.
- Brown, Jeffery. "Magical Novel *Exit West* Explores What Makes Refugees Leave Home: An Interview with Mohsin Hamid." *PBS Newshour*, 16 Mar. 2017, <https://www.pbs.org/newshour/show/magical-novel-exit-west-explores-makes-refugees-leave-home>. Accessed 9 Mar. 2026.
- Brown, Wendy. *In the Ruins of Neoliberalism: The Rise of Antidemocratic Politics in the West*. Columbia UP, 2019.
- Carter, Josephine. "How Far Are We Prepared to Go? Mohsin Hamid's *Exit West* and the Refuge Crisis." *Textual Practice*, vol. 35, no. 4, 2021, pp. 619-38.
- Fraser, Nancy. *The Old is Dying and the New Cannot Be Born: From Progressive Neoliberalism to Trump and Beyond*. E-book ed., Verso, 2019.
- Hamid, Mohsin. *Exit West*. Penguin, 2017.
- Khan, Saba Karim. "'Anxious Citizens of the Attention Economy': In Conversation with Mohsin Hamid." *Wasafiri*, vol. 36, no. 1, 2021, pp. 14-19.
- Knudsen, Eva Rask, and Ulla Rahbek. "Radical Hopefulness in Mohsin Hamid's Map of the World: A Reading of *Exit West*." *Journal of Postcolonial Writing*, vol. 57, no. 4, 2021, pp. 442-54.
- Lagji, Amanda. "Waiting in Motion: Mapping Postcolonial Fiction, New Mobilities, and Migration through Mohsin Hamid's *Exit West*." *Mobilities*, vol. 14, no. 2, 2019, pp. 218-32.

- Naydan, Liliana M. "Digital Screens and National Divides in Mohsin Hamid's *Exit West*." *Studies in the Novel*, vol. 51, no. 3, 2019, pp. 433-51.
- Olumofin, Olasubomi. "Rewriting the Nation: Mobility, Technological Panopticism, and Identity in Mohsin Hamid's *Exit West*." *Journal of Postcolonial Writing*, vol. 61, no. 3, 2025, pp. 386-99.
- Perfect, Michael. "'Black Holes in the Fabric of the Nation': Refugees in Mohsin Hamid's *Exit West*."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vol. 23, no. 2, 2019, pp. 187-201.
- Sadaf, Shazia. "'We Are All Migrants through Time': History and Geography in Mohsin Hamid's *Exit West*." *Journal of Postcolonial Writing*, vol. 56, no. 5, 2020, pp. 636-47.
- Sankar, Dhanya V., and Sarbani Banerjee. "Remembering and Dislocation: Memory, Materiality and Imagination in Mohsin Hamid's *Exit West* (2017)." *Studies in Ethnicity and Nationalism*, 2026, pp. 1-13, <https://doi.org/10.1111/sena.70016>.
- Shaw, Kristian. "BrexLit." *Brexit and Literature*, Routledge, 2018, pp. 15-30.
- Westmoreland, Trevor. "Inverting the Coordinates: Place, Dystopia and Utopia in Mohsin Hamid's *Exit West*."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 48, no. 3, 2025, pp. 77-93.

Abstract

The Possibility of Affect Aliens Excluded from the Promise of Happiness in Mohsin Hamid's *Exit West*

Eunhey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Exit West* by Mohsin Hamid through the lens of *The Promise of Happiness* by Sara Ahmed in order to examine how the novel dismantles the order of normative happiness communities and imagines new possibilities for coexistence. Through the mysterious “doors” that allow refugees, including Saeed and Nadia, to cross borders instantaneously, Hamid presents a world in which lives grounded in singular national identities and stable communities can no longer be sustained. The analysis of Saeed focuses on how he maintains his connection to his homeland and his parents through religion and prayer.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 society, Saeed may appear to be a “melancholic migrant” who cannot let go of the past. However, through prayer, Saeed endures loss and mourning while gradually adapting to new societies in his own way. The discussion of Nadia examines her as an “affect alien,” positioned as both a “feminist killjoy” and an “unhappy queer.” Nadia rejects the happiness scripts imposed by family and society, and throughout her migration she actively embraces her queer desires and evolving identity. Finally, this study analyzes Marin, the final destination shared by Nadia and Saeed, as a space where new possibilities emerge through disorder and contingency. In Marin, Nadia and Saeed no longer share the same orientation toward happiness, yet they form a relationship that does not impose identical lives upon one another. Ultimately, this

study argues that *Exit West* imagines new forms of coexistence that move beyond happiness communities founded on sameness and exclusion.

Keywords: Mohsin Hamid, *Exit West*, Sara Ahmed, *The Promise of Happiness*, politics of happiness, affect alien, coexistence

논문접수일: 2026.5.15

심사완료일: 2026.5.30

게재확정일: 2026.6.08

이름: 김은혜

소속: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이메일: danbi22@hanmail.net

